주체사상과 현대로씨야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정치학 석사학위론문)

로씨야 **김정일**동지로작연구보급촉진협회 위원장

와짐 예브계니예비치 꾸지민

주체사상과 다른 철학사상들과의 근본적차이는 이 사상이 인민대중을 력사의 자주적주체로 내세우고 그들의 자주적사상의식에 결정적역할을 부여한다는데 있다.

바로 인민의 의식수준에 따라 경제, 농업, 군사, 과학,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의 개조의 성패가 결정된다. 외세의 침략을 성과적으로 물리치는 힘도 결국은 자주의식의 높이에 달려있다.

최근 우리 로씨야련방은 자기의 자주적정치와 앞으로의 존재자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외세의 로골적인 압력과 부닥쳤다. 외세는 로씨야를 반대하는 많은 정치적제한과 무역경제제재가 동원하였다. 이러한 제한과 제재들의 로골적인 목적은 지역, 민족, 종교, 재산과 년령, 지어 성별과 같이 있을수 있는 임의의 지표에 따르는 나라의 통일을 파괴하는데있다.

최근에 벌어진 사태들은 로씨야지도부가 의거할수 있는 유일하고 중요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진장한 원천은 바로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는 확고한 근거를 준다.

가까운 앞날에 로씨야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끊임없이 강화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역시 인적요인, 나라의 전체 주민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여기서 로씨야의 풍부한 력사적경험과 함께 각이한 시기에 류사한 정황에 처하였던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창조적으로 연구하는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먼저 이미 몇십년동안 단독으로 외세의 압력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있는 직관적실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험을 연구하여야 한다. 위대한 힘을 가진 주체사상, 모든 문제해결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에서 출발하고 모든 현상에서 주체이며 기본요인인 사람에게 의거할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이 없었다면 세계의 경탄을 자아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존재자체가 위태로웠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게 하는 직관적인 실례이다.

론문에서 힘을 넣어 해설론증하려고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위대한 사상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또한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일시로 좌절되게 된 원인을 간단히 분석하였다. 그것은 《병의 원인을 밝히지 않고서는 치료대책을 세울수 없기》때문이다.

또한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들과 결부하여 내용들을 전개하고있다.

론문의 장, 절체계는 다음과 같다.

머리말

제1장.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위대한 사상

제2장. 이전 쏘련붕괴의 원인들

제1절.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계승성의 결여

제2절. 관료주의자들과 인민들과의 분렬

제3절. 사상사업의 홀시와 물질생활의 추구

제4절. 자주적립장의 결여

제5절. 인민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의 저하

제3장. 현대로씨야건설에서 자주적립장 견지

제1절. 로씨야건설을 중심에 놓고 제기되는 문제 해결

제2절. 자주정치 실시

제3절. 세계경제위기에 끄떡하지 않는 경제 건설

제4절. 강력한 군대와 현대적인 군수공업체 건설

제4장. 현대로씨야건설에서 창조적방법 구현

제1절. 로씨야인민의 창조적힘에 의거

제2절. 모든 문제를 로씨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해결

제5장. 현대로씨야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

견지
제1절. 로씨야인민을 자기 운명과 자기 나라의 주인으로 개조
제2절. 로씨야인민의 열의 앙양
맺는말

제1장에서는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위대한 사상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입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이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인류철학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철학적사유의 중심에 놓으며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모든 철학적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다.

지난날 인류철학사에는 각양각색의 철학사상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전개된 철학사상은 없었다. 주체사상이 나오기 이전시기에는 철학류파들이 수천년에 걸쳐 물질로부터 의식이 발생하는가, 의식으로부터 물질이 나오는가 하는 문제와 세계는 변화발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놓고 끊임없는 론쟁을 벌려왔다. 이로부터 지난날 철학의 발전력사를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간의 투쟁의 력사라고 한다.

력사적으로 수천년동안이나 벌어져온 물질과 의식에 관한 론쟁은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완결되였다. 맑스-레닌주의는 세계는 물질로 통일되여있고 그자체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유물변증법의 원리를 밝히고 그것을 사회력사연구에 적용하여 사회력사에도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물질세계의 일반적합법칙성이 작용한다는것을 해명하였다. 하지만 맑스-레닌주의는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에 초점을

두고 론의하던 종래철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의 사상정신적무기로서의 혁명사상은 마땅히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인민대중의 리익의 견지에서, 인민대중의 힘을 최대한 발동시키기 위한 리론을 전개해나갈수 있는 사상으로 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를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세계의 단순한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주인, 지배자로 내세우고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세계관을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다. 주체사상의 진수는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해명하는것을 중요한 철학적과제로 내세우고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라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혔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주체사상은 모든 사고와 활동에서 사람의 리익과 역할을 중시할데 대한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였다.

주체사상은 다음으로 사람,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원리를 독창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운동에는 자연의 운동에서와는 달리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주체가 있다는것을 천명하고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것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본질적특성으로 하여 사회력사적운동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으로 된다는것을 명시하였다.

주체사상은 다음으로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을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그 창시가 선언되던 첫 시기부터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행동의 무기, 실천의 무기로 전개되였다. 주체사상이 처음부터 행동의 무기, 실천의 무기로 전개될수 있은것은 그것이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여 전개된것과 관련되여있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한마디로 말하여 당 및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원칙이다. 여기에는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기 위한 원칙들이 담겨져있다.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능력에 의거하며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가는데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원칙이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인류의 지도사상이다.

제2장에서는 이전 쏘련붕괴의 원인들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1절에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계승성이 결여된것이 이전 쏘련붕괴의 원인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혁명에서 인민대중을 위대한 사상에 충실하도록 교양하는 문제가 중요하고 선차적인것이라면 새 사회건설을 지도하는 새로운 수령을 준비하는 문제는 혁명에 있어서 사활적인 문제이다.

쓰딸린에게 전권을 넘겨준것만을 충분히 고려되고 시기적절한것으로 볼수 있다. 이 과정도 순탄하게 진행된것은 아니지만 총적으로는 1920년대의 복잡한 성격과 쏘련인민의 기본요구에 부합되는것이였다.

그가 서거하자마자 바로 한세대 혁명가로부터 다음 세대에 권력을 넘겨주는 체계가 서있지 않은 리유로 쏘련공산당지도부안에서는 령도권싸움이 벌어졌다. 이 싸움은 련쇄적인 《소규모궁중정변》을 일으켜 흐루쑈브의 10년집권시기 쏘련을 뒤흔들어놓았다. 혁명의 참모부내에서 벌어진 공개적인 권력싸움, 명예훼손자료들을 리용하고 서로 공개석상에서 비난하고 모든 결함과 오유를 쓰딸린에게 뒤집어씌우는 행위들은 쏘련뿐아니라 전세계에서 공산주의운동에 매우 큰 해독을 끼쳤다.

《이. 웨. 쓰딸린의 개인숭배를 폭로하는 집중공세》는 본질상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허물기 위한 주되는 치명적타격이였다. 《개인미신》반

대소동은 흐루쑈브가 맑스-레닌주의를 거부하고 수정주의를 제창하며 자기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작한 음모였다.

흐루쑈브는 1956년 2월에 소집된 쏘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개인미신과 그의 후과들에 대하여》라는 비밀보고를 하고 쓰딸린을 중상공격하는 일대 소동을 벌려놓았다. 비밀보고에서 흐루쑈브는 쓰딸린이 당과 국가의 《집체적령도원칙을 무시》하였다느니,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억제》하였다느니, 《준법성을 위반》하였다느니 하면서 비방하였다. 또한 쓰딸린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지연시키고 맑스-레닌주의리론들과 과학기술발전에 엄중한 손실을 주었으며 조국전쟁에서 큰 오유를 범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고 헐뜯었다. 흐루쑈브는 사실을 전도하여 쓰딸린을 《횡포한 독재자》, 《폭군》, 《살인자》로 묘사하였으며 쓰딸린이 령도한 30년간을 《암흑의 시대》, 《폭정》과 《대중적테로》가 횡행하던 시대, 《강제로동수용소》의 시대로 그리였다. 그러면서 쓰딸린의 로작들을 회수하여 불살라버리고 쓰딸린의 이름으로 불리우던 모든 도시와 거리, 학교와 기업소의 명칭들을 취소하였다. 심지어 로씨야 력대황제들의 동상은 두어두면서도 쓰딸린의 동상을 파괴하고 쓰딸린의 시신을 묘지에서 들어내여 태워버리는 만행까지 감행하였다.

제2절에서는 관료주의자들과 인민들과의 분렬이 이전 쏘련붕괴의 원인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웨. 이. 레닌은 이미 1921년에 당, 국가, 군대에서 관료주의자들이 정권을 가로챌수 있는 위험이 커가고있는것을 통찰하였다. 그는 관료주의는 단순히 철페할수 없다고 하였다.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투쟁은 장기적인 과정이며 이 투쟁은 새로운 방법들을 리용하여 끊임없이 벌려야 한다고 하였다. 레닌은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기본열쇠를 인민의 통제와 자체통제를 확대하고 이 과정에 광범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데서 찾았다. 1921년 3월에 있은 당 제10차대회에서 레닌은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과업을 밝히면서 그 과업을 수행하려면 《수십만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쏘련형성후 첫시기에는 국가와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관료주의와의 투쟁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당안에 잠입한 이색적인 요소들을 당 및 국가기구에서 세척하기 위한 조치가 여러차례 취해졌다.

모든 일은 제2차세계대전에서 쏘련이 승리한 후 일어났다. 각종 출세주의자들과 탐욕분자들이 당안에 쓸어들었다. 이런 현상이 특별히 표면화된것은 민족국가들이였다. 그곳에서는 흔히 쏘련공산당원증의 가치가 높았고 당적직위는 로골적으로 암시장에서처럼 흥정되군 하였다.

전후 당의 간부정책내용이 변하게 된 다른 한 원인은 전쟁시기 공산주의위업에 충실한 당원들과 절도있는 사람들이 많이 희생된데 있었다. 전후 준비된 인재들이 매우 부족하고 결원된 자리들이 대단히 많아진 조건에서 전쟁때에도 손에 총을 잡고 조국보위에 나서려 하지 않은 사람들앞에는 넓은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되였다. 바로 이 세대가운데서 후에 나라를 성공적으로 매장한 사람들 즉 고르바쵸브와 쉐바르드나제, 옐찐과 같은 자들이 나왔다.

고르바쵸브는 일찍부터 반사회주의감정과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있었다. 1931년 3월 쓰따브로뽈리변강에서 농업집단화를 반대한것으로 하여 처형된 까자크의 손자로 태여난 고르바쵸브는 가정주위환경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반쓰딸린, 반사회주의감정을 가지게 되였다. 그는 혁명전 로씨야의 토착부르죠아가문의 출신인 라이싸를 사랑하면서부터 처의 영향을 받아 부르죠아적《가치관》에 공감하게 되였다. 고르바쵸브는 대학시절에 흐루쑈브의 수정주의로선에 동조하여 쓰딸린의 로선과 사회주의현실을 내놓고 비방하였으며 쏘련의 체제를 변화시킬데 대하여 꿈꾸었다. 고르바쵸브는 집권하자 쏘련공산당의 원칙적인 립장을 다 줴버리였다.

고르바쵸브를 비롯한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회주의말살정책을 실현하는데서 《트로이목마》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트로이전쟁시기에 《트로이목마》는 그리스군이 9년간의 포위공격에서 깨뜨리지 못한 트로이성을 함락할수 있게 하였다면 고르바쵸브를 비롯한 현대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이 70년간이나 봉쇄말살하려고 하면서도 무너뜨릴수 없었던 사회주의를 총 한방 쏘지 않고 허물어버릴수 있게 하였다.

제3절에서는 사상사업을 홀시하고 물질생활을 추구한것이 이전 쏘련붕괴의 원인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의 주체이며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사회주의위업의 승패는 중요하게 인민대중에 의하여 결정된다. 인민대중이 한결같이 떨쳐나서면 겹쌓인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지만 인민대중이 사상적으로 병들어 주저앉으면 사회주의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

흐루쑈브일당은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교양하고 이끌어줄대신 물질적생활조건의 개선일면만 강조하였다. 흐루쑈브는 공산주의건설에 대중을 동원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물질적관심성》이라고 하면서 근로자들속에 물욕과 리해타산만 앞세우는 개인리기주의사상을 퍼뜨렸다. 그리고 이것을 공산주의건설에서 레닌적원칙에 대한 《충실성》으로, 《사람과 사업하는 솜씨》로 자랑하였다. 흐루쑈브일당은 사회경제적조건이 변화되면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저절로 개조되는것처럼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는 《경제문제와 생산문제가 중심에 놓이며 당조직의 전반사업의 첫자리에 놓인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생활에 대한 《행정적간섭》, 《관료주의적억압》. 《자유》의 구속으로, 사람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주는것이라고 하면서 사상교양사업을 포기하다싶이 하였다. 결과 쏘련에서는 당의 사상교양체계가 허물어지고 부르죠아사상의 영향이 날을 따라 강화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아무리 사상정신적잠재력이 컸던 쏘련사회에서도 그때 당시 리기적인 가치관이 지배하였다. 사상사업을 외면하고 물질적자극 일

면만 강조하면서 그것을 경제관리의 기본방법으로 내세운 결과 생산은 침체에 빠지고 사회가 변질되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로씨야신문 《이즈베스찌야》 이전 기자 이완 로보브는 자기의 글 《강력한 타격》에서 《물질적자극에 커다란 의의가 부여되였다. 부에 대한 숭배가 인간의 행복과 동일시 되였으며 물품획득이 생활의목적으로 되였다. 돈을 긁어모으는데서 고도의 파렴치성과 사리사욕이횡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범죄수가 더할나위없이 늘어나게 되였다. 사회는물질적복리를 위한 투쟁에 말려들어갔으며 자본주의세균의 좋은 서식장으로 되였다.》고 하였다.

사상교양사업을 홀시하고 표기한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사회는 변질되게 되였다. 이전 쏘련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 자리잡고있던 혁명에 대한 높은 자각과 계급적관점,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집단주의, 혁명적락관주의와 대중적 영웅주의 등 건전하고 고상한 사상도덕적풍모들은 짓밟히고 부르죠아적인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이 만연되게 되였다. 사람들의 사상적타락은 당과 사회주의제도의 변질을 가져오고 끝내는 당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좌절이라는 가슴아픈 사태를 빚어내게 하였다. 이것은 수정주의자들이 사상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앞에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다.

제4절에서는 자주적립장을 고수하지 못한것이 이전 쏘련붕괴의 원인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1950년대 후반기에 흐루쑈브는 《모든 경제지표별로 미국을 따라잡자》라는 새로운 구호를 내놓았다. 인차 브레쥬네브가 흐루쑈브를 교체했지만 쏘련은 이 잘못된 구호를 들고 항시적으로 미국을 바라보며 자기경제를 주요제국주의국가들의 경제와 대비해보며 자기 존재의 후반기 전기간을 보냈다. 이런 구호자체가 쏘련의 사회주의문명이 뒤떨어진것이며 남을 따라가는 상태라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서방기술과 자동차, 설비를 최대한 빨리 들여오기 위하여 쏘련은 지

난 세기 60년대에 대외무역의 규모를 현저히 늘였다. 유럽에 수출한것은 제일 통용되는 상품인 에네르기자원과 각종 원료였다. 즉 쏘련경제는 세계경제체계의 한 부분으로 되였으며 그의 발전은 세계취인소들의 가격에 매이게 되였다. 이러한 상품교류는 나라를 가격이 대체로 인위적으로 조절되고있는 외국원료취인소에 직접적으로 매이게 한것외에 쏘련의 과학기술을 파괴해버리는 역할을 하였다. 바로 이때부터 쏘련은 기술적으로 뒤떨어지게 되였고 국산제설비가 각종 서방설비에 비해 취약해지기 시작하였다. 쏘련의 마지막시기 사람들은 사대주의에 빠져 모든 외국산품을 신비하게 대하였다.

쏘련의 체계는 문화분야에서도 자주적립장을 상실하였다. 이미 1950년대말 벌써 쏘련에 대한 서방의 문화적 따라서 그에 따르는 사상적침투가 눈에 뜨이게 알렸다. 자본주의나라영화와 음악이 전파되고 외국식옷차림이 류행됐으며 대중상품에서도 수입품에 대한 추구가 시작되였다. 쏘련사람들은 자본주의나라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다만 농촌에서 도시에 사는 형을 찾아온 가난한 동생의 처지였다. 옷도 같이 입고 음악도 같은 음악을 들었고 영화도 같은 영화를 보았다. 그후 그들에게는 같은 영웅이 생겨났으나 이것은 자주적립장을 상실한 결과이고 1950년대 말 쏘련에서 진행된 모든 문화사업이 파탄된 결과였다.

제5절에서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이 떨어진것이 이전 쏘련붕괴의 원인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쏘련력사연구자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쏘련에서 1950년대말~1960년대초에 현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미래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만연되고있었다. 처음 이런 기운은 주로 수도에 있는 예술인들속에서 전파되였다. 20년 가까이 흐르는 과정에 그런 경향은 쏘련사회의 거의 모든 계층속에 다 전파되여 일상적인것으로 되여버렸다.

흐르쑈브집권말기에 국가체계는 이미 명백히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악만 남고 이르는곳마다 당국과 현지정권기관일군들에 대

한 불만이 거의 로골적으로 나타나고있었다. 사태는 임의의 순간에 완전히 통제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흐르쑈브가 사퇴한 이후 시기 지방직맹이나 정권기관은 쏘련국가와 사회생활에서 가지던 의의와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단체들의 활동은 다만 로동자들의 가장 단순한 생활상요구를 보장하는것으로 극한되고 간부사업결정이나 생산관리에서는 그 어떤 역할도 할수 없게 되였다. 지방직맹이나 정권기관은 근로자들에게 값눅은 휴양권이나 보장해주는 일이나 하였고 보다 큰 사업에서는 결정권이 전혀 없었다.

이런 조직내에는 교조주의와 형식주의가 지배하고있었다. 지도일군들중 누구도 자기 사무실들에 걸려있는 구호를 믿지 않고있었다. 행사들은 고정격식화되고 당회의 지어 공청회의도 고리타분하게 흘러가고 모든것이 꼭대기에 앉아있는 어느 한 책임일군을 위해 진행되고 자기들은 다만 출석이나 긋기 위해 앉아있다는 경향이 농후했다. 이런 회의들에서 날카롭고 예민한 문제들은 될수록 취급하지 않으려고 애썼으며 결과 참가자들의 창조적열의를 떨어뜨렸다. 근로대중의 창조적열의가 거의 령으로 떨어진것으로 하여 1991년이 되기 퍽 전부터 쏘련인민은 나라와 모든 전변의 주인으로 되기를 그만두었다.

제3장에서는 현대로씨야건설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1절에서는 로씨야건설을 중심에 놓고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로씨야건설을 중심에 놓고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로씨야인민이 새 사회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모든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이다.

로씨야의 모든 공민들이 자기의 조국을 부활시키는 사업을 자기자신의 사업으로 여기고 자주적인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 립장을 가져야 한다. 로씨야건설을 중심에 놓고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인민들은 자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의 신념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로씨야건설을 중심에 놓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혁명과 새 로씨야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전제조건은 온 나라와 온 사회에 하나의 사상, 자주적인 사상이 지배하도록 하는것이다. 자주적인 사상으로 무장하여야 인민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로씨야건설을 중심에 놓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자기의것에 정통하여야 한다.

매개 나라는 력사도 언어도 풍습도 자연지리적조건도 같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자기의것을 모른다면 자기 나라를 위하여 참답게 투쟁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기 나라의 력사와 자기 인민의 풍습, 생활감정을 모르고서는 아무 일도 자기 인민의 리익과 구미에 맞게 할수 없다. 또 자기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을 모르고서는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공업을 건설할수 없고 자기 나라 풍토에 맞게 농사도 할수 없다.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있는 국가로서 로씨야련방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의 력사와 지리, 경제와 문화, 자기 인민의 문화와 풍습을 잘 알아야 한다.

로씨야건설을 중심에 놓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사람들이 높은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자존심이 강한 민족은 불패이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무력하다. 자존심이 높아야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극복할수 있다. 자존심은 자기의 모든 우수한것에 대한 자랑의 감정이며 자기의 힘과 자랑찬 력사와 전도

에 대하여 가지는 확고한 신심이다. 자존심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중요한 정신적원칙으로 된다. 자존심은 자기의 우수성, 자기의 힘과 전도에 대한 자랑의 감정, 신심뿐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각오이다. 자존심이 높으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허용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굳건히 지켜내게 되며 높은 열의와 적극성을 발휘하여 번영을 이룩해나가게 된다.

로씨야건설을 중심에 놓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자기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혁명과 새 로씨야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근본담보는 또한 자기의 문화를 발전시키는것이다. 자기의 문화를 건설하여야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을 건전하게 할수 있으며 사상에서 주체를 더 잘 세울수 있다. 과학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대중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과학기술에서 남을 쳐다보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상을 뿌리뽑고 주체를 철저히 세울수 있다.

로씨야건설을 중심에 놓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사대주의를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 장애로 되는것은 사대주의이다. 사대주의는 사상에서 주체확립과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가장 유해로운 사상조류이다. 아마도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이러한 투쟁은 언제가도 끝나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제국주의가 자기의 본성으로부터 특히 주민들을 사대주의에 물젖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대한 침투책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때문이다.

쏘련에서는 지식인들을 통하여 주민들이 사대주의에 물젖게 되였다. 이들은 오늘에 와서도 우리 나라에 이색적인 사상이 침투할수 있게 하는 위험한 길잡이로 되고있다. 력사에는 공적을 세운 사람 때로는 학자나 전투영웅이 사상적오유를 범하여 점차 그것이 사대주의로 변하고 이어

그를 조국의 적들의 진영에로 직접인도한 실례가 적지 않다.

쏘련의 물리학자인 원사 아. 데. 싸하로브는 수소폭탄을 만들어냈으며 자기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해놓았다. 조국은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3중쏘련영웅칭호와 기타 표창들, 쓰딸린금상들을 수여하였다. 의심할바없이 원사 싸하로브와 그의 가정에게는 가장 훌륭한 물질생활조건과 사업조건이 보장되였다. 외국의 학자들은 당시에는 이러한 조건에 대해는 꿈에서나 그려볼수 있는 정도였다. 이와 같은 특전을 받으면서 수령과 당, 전체인민들로부터 깊은 존경과 큰 배려를 받아왔지만 그는 사대주의견해에 물젖게 되였다. 사대주의자로 전락된 원사 싸하로브는 과학을 집어치웠을뿐만아니라 자기 국가의 로골적인 적들의 진영에 아주 빨리 넘어갔다. 미국과 기타 나라들의 특수기관들은 그를 이른바 《반체제운동》의 잘 째인 각본대로 둔갑시켜 저들이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여 벌린 랭전에서 주패장으로 써먹었다.

제2절에서는 자주정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자주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주정치는 밖으로는 외세에 의존하거나 추종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고수하고 안으로는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첫자리에 놓고 인민이 주인이 된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이다.

자주정치를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민의 정권을 세워야 한다.

정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인 국가정권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로씨야련방에서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정권이 설 때에만이 완전한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다.

자주정치를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참다운 정치적력량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시기 로씨야에 존재하는 정치력량들은 다른 징표로 조직되였기때문에 이와 같은 목적에는 적당치 않다. 각급 정권기관들에 끼여든 세력들이 일부 주민들속에서 호감을 자아내는것은 출세욕때문이다. 또한 정확한 사상이 없는 그들은 자기 지도자의 특별한 재능, 금융사정 등에 크게 의존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인것만큼 자주적인정치를 하자면 인민대중의 힘을 하나로 묶어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인민은 국제무대를 비롯하여 하나의 통일전선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할수 있다.

자주정치를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정치에서 기본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것이다. 정치에서 남의 압력과 간섭을 받아들이거나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인다면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수 없으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 나라의 현실에 맞게 자주적으로 규정하고 집행하였기때문에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자주정치를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국가의 자주성은 결국 대외관계에서 표현된다. 대외적으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것은 정치적자주성을 보장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대외관계에서는 자주권과 평등권문제에서의 자그마한 실수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후과를 가져오게 될수 있다.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배주의세력에게 한결

음을 양보하게 되면 그것은 백걸음의 양보로 이어지며 나아가서 나라가 현대판식민지로 굴러떨어지게 할수 있다.

제3절에서는 세계경제위기에 끄떡하지 않는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세계경제위기에 끄떡하지 않는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세계경제위기에 끄떡하지 않는 경제 건설은 로씨야에 있어서 절박한 과제로 나선다. 적대세력들, 특히 미국과 나토는 최근시기에 로씨야의 정치가 저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경우마다 매번 로씨야에 대한 《제재》에 더 자주 매여달리고있다. 로씨야는 세계분업에 참가하여 대외시장에는 주로 원료를 팔고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제품들을 사들이면서 자기의 적대국들로부터 아주 심각한 압력을 받을수 있는 위험을 조성하고있다. 이로부터 가능한 적대행위들을 미리 예견하고 가능한 제국주의의 영향자체를 배제하는 경제를 건설하는것이 중요하다.

로씨야땅에는 유용광물과 원유, 가스, 산림, 기타 유익한 자연원료들이 풍부하다. 세계에서 로련이 보유하고있는 몫을 보면 원유는 10~12%, 가스는 32%, 석탄은 11%, 철은 25%, 니켈은 33%, 연은 10%, 아연은 15%, 카리염은 31%이다. 로씨야는 령토와 비옥한 땅, 담수자원, 산림자원측면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완전히 독자적인 자립경제를 건설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로 된다. 로씨야의 력사에는 이미 완전한 자립성에 최대한 부합되는 경제를 건설해본 경우들이 있다. 1920년대~1930년대에 혁명과 공민전쟁이 있은 후에 쏘련에서는 공업화를 다그쳤다.

세계경제위기에 끄떡하지 않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이다. 자력갱생의 혁명방법은 로씨야의 력사에서 여러번 자기의 우점을 잘 보여주었으며 앞으로도 그 위력을 발휘할수 있는 희망이 있다. 자력갱생의 방법으로 나라의 전체 주민들을 경제와 기타 건설에 동원시켜야만 전체 인민이 나라의 부흥을 위한 사업을 자기 자신의 사업으로 여기고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도록 할수 있다.

세계경제위기에 끄떡하지 않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자립경제는 응당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도록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건설되여야 한다. 이러한 경제를 건설하여야 경제를 공고한 토대우에서 안전하게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조선에서는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된 자립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을 견지하고있다.

세계경제위기에 끄떡하지 않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길러내야 한다.

자체의 발전된 기술이 있어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수 있으며 인민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기술을 발전시켜야 근로대중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갈수 있으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은 풍부한 원료자원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자체의 기술이 없기때문에 그것을 적극 개발하지 못하고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겨우 원료나 반제품을 만들어 눅은 값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있다. 그대신 비싼 값으로 기계설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건을 사들이고있다. 이런 불평등한 처지에서 벗어나자면 기술문제를 빨리 풀고 이에 기초하여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자립경제건

설에서 생산자, 기술자들인 민족간부들을 키우는 문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경제와 기술을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강력한 경제일군, 군사지휘관, 기사, 과학자, 기술자민족부대를 양성하는데서 전체 인민의 일반적인 지적 및 문화적잠재력을 높이는것이 기초로 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가 하는데 개별적인 공민들뿐만아니라 온 나라의 성과여부가 직접적으로 달려있다. 문화전선과 지식전선에서 돌파구를 열면 필연코 인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인민생활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며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돌파구가 열리게 된다. 웨. 이. 레닌이 내놓은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자!》라는 구호는 그것이 생겨난지 100년이 지난후에도 그 생활력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세계경제위기에 끄떡하지 않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자체의 원료, 연료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원료와 연료를 남에게 의존하는것은 경제의 명줄을 남에게 거는것과 같은것이다. 아무리 크고 현대적인 공장을 많이 건설하여도 원료나 연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게 된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로씨야는 유용광물과 원유, 가스, 석탄, 철, 니켈, 연, 아연, 산림, 기타 유익한풍부한 자연원료들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자연부원에 의거하여 자체의 원료, 연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면 자립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제4절에서는 강력한 군대와 현대적인 군수공업체를 건설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국주의는 그 본성으로부터 언제나 항시적인 전쟁과 군사적공갈, 국가정변의 근원으로 되여왔다. 이전 시기에는 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여러개의 제국주의국가들이 존재하였다. 현재에는 종전의 력사적과정에 일본과 도이췰란드와 같은《작은 제국주의 또는 지역제국주의》들을 저들에게 복종시킨 미제국주의가 가장 침략적인 주제국주의로 되였다.

현시기 전쟁 및 군사적긴장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명백하며 로골적인 근원으로 되는 미제국주의는 이전 력사에서는 볼수 없었던 군사체계를 창설하였다. 이 체계에는 지구의 이르는곳마다에 배비한 수백개의 군사기지, 대양들을 통제하는 6개의 항공모함전단, 수백만명의 병사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박멸할수 있는 헤아릴수 없는 량의 핵무기와 미싸일이 속해있다. 미국의 군사예산이 세계의 기타 모든 나라들의 군사예산을 몇배로 릉가하며 항시적으로 장성하는 추이를 보인다고 충분히 말할수 있다. 그밖에도 워싱톤의 괴뢰들은 워싱톤의 지령에 따라 저들의 무력을 즉시 미국과의 공동지휘에 맡길 준비가 되여있다. 일본과 나토국가들, 기타 추종국들은 이미 조선과 웰남, 리비아, 유고슬라비아, 이라크에서 미국의 모험적인 침략책동에 여러차례 가담하였었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내외의 원쑤들로부터 자기 나라을 지킬수 있는 강력한 군대와 현대적인 군수공업체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강력한 군대와 현대적인 군수공업체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자위적무장력을 가져야 한다.

1999년 3월 24일 미국과 나토에 의하여 꼬쏘보전쟁이 일어나 78일간 진행되였다. 이 전쟁기간에 나토는 수천기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천수백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2만 5 000회나 출격시켜 무차별적인 공습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약 2 000명의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이 죽고 6 0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0만명이상의 피난민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전 유고슬라비아는 약 1 000억 us$의 물질문화적손실을 당하였다. 마침내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굴복하여 그들이 고안해낸 《랑부이에계획》대로 꼬쏘보의 자치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철수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은 개선장군마냥 유고슬라비이땅에 발을 들여놓게 되였다. 이전 대통령 밀로쉐위츠까지도 전범자로 몰려 국제재판소의 피고석에 앉게 되였으며 운명을 마치게 되였다. 꼬쏘보전쟁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자

위적무장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으로 내세우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전인류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강력한 군대와 현대적인 군수공업체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세워야 한다.

지난 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은 지상공격작전을 기본으로 하여 침략하는것을 선차로 내세웠다. 오늘날에는 중장거리정밀유도무기, 첨단군사기술장비, 대형타격수단을 선제공격수단으로 하여 적측지역을 초토화한 다음 지상무력을 들이미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결국 현대전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이 벌어지는 립체전이다. 이로부터 전체 인민이 손에 무장을 잡고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요새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그 어떤 대적이 하늘과 바다, 륙지 그 어디로 쳐들어와도 끄떡없으며 맞받아 쳐물리칠수 있다.

강력한 군대와 현대적인 군수공업체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인민무력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은 무기나 기술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한 군대와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혁명적헌신성에 있다. 불패의 혁명무력, 진정한 인민의 무력을 건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적들에 비해 정치사상적으로 우세를 차지하도록 하는것이다. 전인민적인 군대에서 병사로부터 원수에 이르기까지 모두 혁명전쟁의 목적과 과업을 잘 알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임의의 전쟁의 승패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한 전체 군대와 인민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혁명적헌신성에 의하여 좌우된다. 세계전쟁사를 통하여 알수 있는것처럼 잘 무장되지 못한 군대도 자기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자각하면 침략자들을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반대로 내부로부터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는 아무리 가장 현대적인 무기와 기술장비들을 가득 쌓아놓고있어도 소용이 없었다.

강력한 군대와 현대적인 군수공업체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자체의 군수산업총체를 강화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나라의 군수산업총체를 강화하고 계속 발전시키는것은 국방에서 자위를 중요하게 물질적으로 안받침하는것으로 된다. 로씨야는 오래고도 훌륭한 병기생산전통을 가지고있으며 각방으로 발전시키고 장려하여야 할 독특한 자체의 생산설계학을 가지고있다. 로씨야의 무기는 해외에서도 좋은 호평을 받고있다. 세계무장장비시장의 23%이상을 우리 나라가 차지하고있으며 특징적인것은 자기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들이 바로 그 주요구매자들이라는것이다. 이처럼 현세계에서 자체의 발전된 군수산업을 가지고있는것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민족해방운동세력을 지원할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외국제시제품들과 생산품리용을 최소한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 로씨야기사들이 발명하고 로씨야의 로동자들이 자체의 힘과 재능에 철저히 의거하여 만든 무기만이 나라를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다.

제4장에서는 현대로씨야건설에서 창조적방법을 구현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1절에서는 로씨야인민의 창조적힘을 동원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1917년혁명과 그 이후에 공민전쟁이 있은 후 쏘련은 완전히 극단적인 대내외정치정세하에서 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했다. 세계의 많은 주요국가들은 그 시기 쏘련을 인정하지 않았다. 쏘련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여있었으며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 투자와 차관을 할수 없고 선진기술과 설비들의 납입을 금지하며 자국의 간부들이 외국에서 공부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쏘련정권은 자국의 대다수주민들의 지지와 신뢰라는커다란 예비를 가지고있었다. 바로 여기에 의거하여 공업화가 성과적으로 실시되여 쏘련경제가 일련의 지표들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게 되였으며 세계적인 나라별인기률에서 영예롭게도 두번째 자리를 차지할수 있었

다.

오늘날 이와 류사한 현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게 된다. 이 나라에는 원유와 가스와 같은 전통적인 탄화수소자원이 없으며 빨리 리윤을 줄수 있는 기타 자연부원들도 적다. 나라에는 산이 많은것으로 하여 면적의 20%만이 농경지로 쓸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제자주정치를 실시하는것으로 하여 거의 전력사적과정에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속에 살아왔다.

조선에서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있는 비결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 자기 수령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의 끝없는 신뢰심에 있다. 바로 인민의 전적인 지지를 받음으로 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북조선을 자체의 힘으로 핵 및 우주강령들을 실현할수 있는 발전된 공업강국으로 떠밀어준 혁명적인 변혁들이 일어났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결정적력량이다. 그런것만큼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야 어떤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로씨야인민의 창조적힘을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옳은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그것을 대중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에서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는 현대적인 강력한 로씨야건설로선을 작성하는데서 인민자체의 의견을 고려할뿐만아니라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인민들이 얻게 되는 뚜렷한 리익에 대하여 알려주는것이 중요하다. 전체 인민에게 개혁을 실시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해설해주는 품이 많이 드는 사업은 결과적으로 모두가 리득을 보게 되는 개혁자체와 같이 그만큼 중요하다. 문제가 이렇게 설정될 때만이 전체 인민들속에서 주인으로서의 자각이 생길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부가 제

시하는 로선과 방침을 자기들자신의 사업으로 여길수 있다.

로씨야인민의 창조적힘을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 한다.

대중을 하나의 단합된 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은 레닌의 령도밑에 승리한 사회주의10월혁명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레닌은 자본의 지배와 억압을 반대하고 짜리전제제도를 미워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기 위한 사회주의혁명에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혁명승리 후에도 레닌은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청소한 사회주의국가를 제국주의무력간섭자들과 국내반혁명백파도당의 침략으로부터 굳건히 지켜냈으며 전후에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한 당과 인민의 투쟁을 진두에서 조직령도하였다. 고난과 시련이 앞을 막을수록 인민이라는 《바다》속에 들어가면 뚫고나가지 못할것이란 있을수 없다.

로씨야인민의 창조적힘을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혁신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특히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중요하다.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새 사회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로씨야인민의 창조적힘을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군중적운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군중적운동은 근로대중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창조적방법이며 대중적투쟁과 집단적혁신으로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을 다그치는 혁명방법이다. 군중적운동을 방해하는 온갖 요소들을 반대하고 군중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군중적투쟁을 조직화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킨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로씨야인민의 창조적힘을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옳바른 사업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옳바른 사업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사업방법이다. 이러한 사업방법은 돈과 채찍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나 행정식, 명령식 사업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옳바른 사업방법을 확립하여야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충분히 발양시켜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갈수 있다.

제2절에서는 모든 문제를 로씨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해결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은 각이한 시대적조건과 매개 나라의 구체적인 환경에서 진행된다. 새 사회건설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다 들어맞는 처방이란 있을수 없다. 이로부터 모든 문제를 로씨야의 구체적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풀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0개의 시간대에 펼쳐진 큰 나라이면서도 인구수가 많지 않고 100여개의 각이한 민족과 준민족이 살고있는 로씨야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이 혁명과 새 사회건설과정에 필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로씨야의 중요한 지정학적특징이다. 이것을 객관적인 요인으로 볼수 있다.

로씨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로씨야의 주객관적조건을 잘 타산하고 그에 맞게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규정하여야 한다.

로씨야에서 혁명적변혁들을 시작할수 있는 전략전술을 세우는데서 바로 그 시기에 조성된 주객관적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는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업에서의 성과여부도 큰 문제거리로 될수 있다. 또한 틀에 맞추어 사업을 시작하면 혁명과 건설에 돌이킬수 없는 해를 끼치게 될것이다.

로씨야의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기성리론에 옳게

대하여야 한다.

나라의 지도부는 혁명적인 변혁들을 이룩하는 길에서 모든 기성리론들에 대한 태도를 명백히 가져야 한다. 현재 사회에는 나라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기본부류의 주민들의 과학적인 요구에 부합되는 그 어떤 유일하게 지배적인 발전리론도 없다는것이 기정사실화되여있다. 사회의 사상은 통일되여있지 못하고 서유럽경제학자들의 가장 대담한 신자유주의리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이비정교의 보수적인 인테리들속에서 불현듯 부활된 《제3로마》의 완전히 무지몽매한 리론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사상이 다 떠돌고있다.

로씨야의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시대의 력사적조건과 자체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원리들과 방도들을 적극 탐구하여야 한다.

시대는 한자리에 머물러있는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한다. 변화발전하는 시대는 인류의 절박한 해결을 바라는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끊임없이 산생시키고있다. 실례로 랭전의 종식과 더불어 좌절된 사회주의운동을 어떻게 재생시켜야 하는가, 정보산업의 발전과 함께 육체로동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인테리대렬이 늘어나고있는 조건에서 혁명력량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가, 날로 횡포해지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책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더욱 더 심각해지고있는 환경문제를 인류는 어떻게 타개해나갈것인가 등 새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고있다.

로씨야의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남의 경험에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남의 경험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사회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을 반영한것이다. 때문에 그 나라에서 생활력과 우월성이 뚜렷이 증명된 좋은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나라에 꼭 들어 맞을수는 없다.
거기에는 자기 나라에 필요하고 유익한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것도 있으

며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것도 있고 맞지 않는것도 있다. 총적인 전략방향과 구체적인 정세와 정황에 고유한 항시적이며 창조적인 탐구는 현실을 생동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되며 교조주의를 믿음직하게 막는것으로 된다. 중요한것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재평가하는것이다. 유익하고 필요한것은 받아들이고 반대로 해로운것은 대담하게 버려야 한다.

제5장에서는 현대로씨야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을 견지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1절에서는 로씨야인민을 자기 운명과 자기 나라의 주인으로 개조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세계에서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는 현대적인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개조가 필요하다. 공업화수준이 높거나 상품이 남아나고 실례로 살림집문제와 같은 기타 물질적문제들이 해결되였다고 해도 그것은 로씨야인민이 자기 운명뿐아니라 온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였다는것을 립증해주지 않는다.

자기 운명과 자기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사람들을 개조하는 사업은 그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사업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관되여있다. 결국 사람의 품격은 직무가 올라가거나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느끼는데서가 아니라 사상적대가 강하고 나라와 력사에 충실하며 매일 매시각 정의의 리상을 따르는데서 규정된다.

사람들을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만들자면 그들속에 혁명관을 옳게 세워야 한다. 새 사회건설에 어떻게 대하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혁명관이 어떻게 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자기 인민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오늘 로씨야는 사방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포위된 성새로 더욱더 변

하고있다. 성벽이 굳건한가 하는것은 현존무기보다는 요새사령관의 권위에 많이 관계된다. 그렇기때문에 로씨야의 적수들은 이전에도 그러한것처럼 오늘날에도 나라의 지도부의 권위를 훼손시키는데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있으며 개인숭배, 부정부패, 친척친우주의와 같은 각종 조작물들을 미끼로 들이밀고있다.

혁명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혁명관을 세우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체득하여야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하고 혁명의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볼수 있으며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혁명정신을 소유하는것은 혁명관을 바로 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대내외에서 벌어지는 사변들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자면 혁명적애국주의정신과 자기 희생정신, 자기 인민에 대한 무한한 복무정신, 수령에 대한 충실성, 조국의 적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혁명관이 옳게 섰는가 안섰는가 하는것은 혁명적실천에 의하여 검증된다. 실천과 행동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사상을 평가하고 검증할수 없다. 실천은 진실의 척도이다. 혁명실천을 떠나서 사람들의 사상성과 그들의 공민적자각성을 검열할수 없다.

제2절에서는 로씨야인민의 열의를 앙양시켜야 한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모든 변혁은 로씨야의 매 공민의 심장속에 전례없는 정신적 및 혁명적격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중의 열의가 없이는 그 어떤 자그마한 전진도 이룩할수 없다. 도덕적 및 정신적특성의 긍정적변화가 의식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것만큼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혁명은 남이 시켜서 하거나 그 무슨 보수를 바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정치적신념과 자각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혁명투쟁에서는 언제나 정치사업을 앞세워 사람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로씨야인민의 열의를 앙양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행정실무사업과 기술경제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라앞에 제기되는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은 우선 정치사업이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있다. 정치사업과 도덕적자극을 물질적요인과 잘 결합해야 소기의 긍정적결과를 얻을수 있다. 사람들에게는 돈을 버는것도 중요하다. 누구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대한 사업에 참가하였다는 인식, 자기가 나라와 인민, 거대한 사회정치집단에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하여 더 큰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로씨야인민의 열의를 앙양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자극을 옳게 배합하여야 한다.

로씨야에는 수십만키로에 달하는 철도가 건설되여있다. 많은 구간의 철도가 쏘련의 마지막 시기에 건설된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말~1980년대에 진행된 거대한 건설만이 대중의 의식에 가장 엄혹한 기후조건에서 창조된 위대한 로력적위훈으로 기억되여있다. 이 건설의 이름은 밤 즉 바이깔-아무르간선건설이다. 이 건설은 레닌공청이 책임지고 진행한 마지막 건설사업이다. 당시 쏘련에는 보다 편안한 조건에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많았다. 온 나라에 수많은 대상들이 건설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밤건설에 쏠리였다. 그들의 관심은 물질적요인에만 있지 않았다. 밤건설자들은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 커다란 희망을 안고 건설에 참가하였다. 밤건설에서는 대중과의 정치사업이 더 잘 진행되여 그 참가자들이 아직까지도 만족과 긍지를 안고 살고있다. 이 단순한 실례가 보여주듯이 정치도덕적요인들을 잘 리용하면 물질적요인보다 더 심도있고 강한 효과를 낼수 있다.

맺는말에서 위대한 사상은 인류공동의 재부이며 세계를 지배하는 무기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온갖 지배와 예속을 청산

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의 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향도하는 기치로서 온 누리에 찬연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